

LUXURY

December 2011



연말연시 파티 가이드

Fur & Clutch Bag | Glittering Makeup | Gift Item 105

가장 럭셔리한 예술, 오페라

All about Vintage Champagne

셰프들의 포틀럭 파티

BVLGARI

DESIGN IS POWER

DESIGN TO EAT

메뉴, 인테리어, 서비스, 마케팅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레스토랑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토털 디자인의 가치를 가장 대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의 대표적인 공간이다. 유럽 디자인의 중심으로 떠오른 독일 레스토랑 5곳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의 트렌드를 알아본다.

BELLA ITALIA WEINE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레스토랑 '벨라 이탈리아 와인'은 시칠리아 출신의 여성 마리아 파타네Maria Patane가 운영하는 와인 숭배자 레스토랑이다. 몇 년 동안 작은 공간에서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시칠리아 요리를 선보였던 그녀는 고객이 꾸준히 늘어나자 더욱 넓고 쾌적한 레스토랑을 꾸미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새롭게 선택한 곳은 주거 지역으로도 인기가 높고, 크리에이티브한 사무실이 많은 슈투트가르트 서쪽에 위치한 공동 주택multiple dwelling의 1층. 바우하우스 시대 디자이너 빌헬름 바겐펠트스타일의 심플한 가구들로 꾸민 이곳은 몇 달 후 색다른 컨셉트의 레스토랑으로 탈바꿈했다. 새로운 '벨라 이탈리아 와인'의 전체 디자인을 맡은 IF 그룹의 피터 이폴리토Peter Ippolito는 "모던하게 인테리어했지만 기존의 가족적인 분위기와 친근하고 따스한 감성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또 와인 저장고의 성격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천장에 달린 90개 이상의 '거울'. 각기 다른 모양의 거울이 뒤섞여 달린 천장은 2008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며 이 작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전 세계에 알릴 만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피터 이폴리토는 몇 해 전 방문한 시칠리아 팔레르모 부근 바게리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한다. "천장 가득 오래



1

된 거울들을 촘촘하게 달아놓은 것을 보는 순간 '그래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거울은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할 뿐 아니라 때로는 관능적인 분위기를, 때로는 우아한 느낌을 전한다." 벽면에는 와인과 글라스를 장식한 진열대를 설치했고 와인 저장고 느낌을 강조한 와인 숭배 함께 운영한다. 거울로 화려하게 장식한 메인 홀을 지나면 기존 벨라 이탈리아 와인 그대로 편안하고 푸근한 거실을 만날 수 있다. 피터 이폴리토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다음 공간이 궁금하고, 여러 가지 디테일을 발견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벼룩시장에서 찾은 거울과 조명, 이곳의 분위기에 맞춰 주문 제작한 가구와 페인트까지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또 다른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주소 Vogelsangstr. 18 70176 Stuttgart, Germany. 문의 www.bella-italia-weine.de, (+49) 0711-3422-8680.



2



3

THE MASH

낡은 건물이면 무조건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매시'의 변신을 눈여겨볼 것. 이곳은 오래된 양조장을 개조해 평일 낮과 저녁에는 카페와 레스토랑으로, 밤과 주말에는 핫한 클럽으로 바뀐다. 가장 큰 특징은 500m²의 방대한 공간 모두 버리는 곳 없이 활용하는 것.

이곳을 디자인한 IF 그룹의 담당자는 '컨템퍼러리 바'를 컨셉트로 삼았다. 메인 바를 무대 한가운데로 옮기고, 세로로 긴 톱들을 스트링 커튼으로 분리 배치해 용도에 따라 조합 가능하도록 했다. 이벤트에 따라 메인 공간을 유동적으로 바꾸는 것. 소제 역시 돋보인다. 바의 앞면과 뒷벽은 패각 석회암으로 장식했는데, 천장에 촘촘하게 설치한 할로겐 조명을 받으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작은 흡이 파인 석회암 벽에 황금빛 조명이 번져 공간을 더욱 몽환적으로 만든다.

이곳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슈투트가르트 아티스트 모니카 트렌클러Monica Trenkler가 초현실주의 콜라주 방식으로 완성한 천장 타일이다. 부엌과 이전 양조장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 옛 향취를 떠올리게 하는 거대한 콜라주 타일은 바라보는 각도와 관점에 따라 그 느낌이 달라 더욱 호기심을 자아낸다. 주소 Forststr. 7 70174 Stuttgart, Germany. 문의 www.mash-stuttgart.de, (+49) 0711-1209-330.

1 천장에 각기 다른 모양의 거울을 90여 개 달아 몽환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강조한 벨라 이탈리아 와인. 2 오너의 개인 소장품과 벼룩시장에서 찾은 거울들이 서로 다르지만 오묘한 조화를 이룬다. 3 오래된 양조장을 개조해 낮에는 카페와 레스토랑, 밤에는 핫한 클럽으로 바뀌는 더 매시.





1

HOLYFIELDS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부근 '홀리필드'의 첫 번째 매장은 기존 체인 레스토랑의 통념을 깨는 독특한 구성과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time to eat'를 모토로 삼아 정교한 주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이엔드 레스토랑의 가치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즐길 수 있다. 입구의 터치 스크린에서 메뉴를 선택하고 자리에 앉으면 수신기로 음식이 완성되었음을 알려줘 주문하거나 음식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모듈화된 레스토랑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이곳의 디자인이다. 홀리필드는 위트 있고 독특하며 생기가 넘치지만 아늑함도 놓치지 않는 인테리어 디자인에 초점을 맞췄다. 처음 이곳에서 보게 되는 것은 모양이 각기 다른 흰색 카운터 테이블 아래의 다리들이다. 반짝이는 천장 장식은 이곳이 레스토랑의 중심임을 알려준다. 다양한 공간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구들을 배치했다. 나무 테이블과 베이직한 의자가 놓인 자리는 클래식한 분위기를 내고, 흰색 천을 씌운 테이블에 낮고 폭신한 2인용 벤치가 세트인 자리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연상시킨다. 중앙 통로를 따라 길게 이어진 오크 바 테이블과 긴 의자는 바쁜 손님들이 잠시 차를 마시는 용도로 안성맞춤이며, 뒷벽으로 연결한 바 테이블은 모르는 이와도 쉽게 어울릴 수 있는 무난한 구조다. 물을 마실 수 있는 흰색 분수, 흰색 벽과 기둥 곳곳에 그려진 곡물과 채소, 해산물 그림은 내추럴한 분위기를 더욱 강조한다.

음료와 디저트 주문 공간은 분위기가 달라진다. 어두운 오크 카운터 앞쪽에는 검은색 가죽을 씌우고, 뒷벽에는 흰색 타일에 동물 스케치를 장식해 재미를 더한다. 카운터 옆쪽 공간은 작은 라운지 역할도 한다. 모듈러 방식의 암체어와 두꺼운 쿠션, 패브릭을 씌운 조명이 편안하게 느껴진다.

'홀리필드'에서 심혈을 기울인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음향이다. 천장에 뚫린 기하학적인 구멍은 사운드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이곳은 2011년 iF 디자인 어워드와 레스토랑 & 바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며 감각적인 디자인을 인정받았다. 주소 Kaiserstr. 19-21 60311 Frankfurt, Germany. 문의 www.holyfields.de.



2



3

1 체인 레스토랑의 선입견을 깨는 독특한 구성과 인테리어의 '홀리필드'. 2 벽면에 식재료와 동물의 스케치를 담아 재미를 더했다. 3 하이엔드 레스토랑의 가치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BAR FOUFOU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샴페인 바 '포포'는 앤틱 스타일의 건물 코너에 자리한 작은 바로, 빌딩의 위치와 역사에서 영감을 얻어 4개의 살롱으로 나누어 공간을 구성했다. 입구에서 처음 보이는 것은 'L' 모양의 카운터. 아담한 입구가 더욱 넓어 보이는 것은 바 뒷벽의 커다란 거울과 패브릭으로 씌운 천장 조명 덕분이다. 바는 그리니시 골드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장식했고, 이 패턴은 뒷벽을 따라 천장까지 이어진다. 클래식한 녹색 벽면은 흰색 창틀과 어우러져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뒤에는 또 다른 방이 숨어 있다. 보라색 커튼을 치고 검은색 안락의자와 긴 벤치를 함께 배치했는데, 조도를 낮춰 더욱 아늑하게 느껴진다. 위층에는 레드 살롱이 있는데 두툼한 카펫을 깔아 부드러운 느낌을 강조했다. 세 면을 폭신한 벤치가 둘러싸고 있으며 벽에 걸린 청동 거울이 공간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그 층에 있는 또 다른 살롱은 나무 바닥에 제트 블랙 컬러 리프렉션 가구들과 메탈릭 브론즈 톤의 모던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다. 살롱의 문을 열면 흡연 공간으로 이어지는데, 어두운 갈색 벽지와 무거운 체스터필드 안락의자를 벽난로 주변에 배치해 부담 없이 흡연을 즐길 수 있다. 주소 Leonhardstr. 13 70182 Stuttgart, Germany. 문의 www.bar-foufou.de, (+49) 0711-5189-1511.



1



2



3



4

1 4개의 살롱 컨셉으로 디자인한 샴페인 바 '포포'. 2 그리니시골드다이아몬드 패턴으로 장식한 메인 바. 3 '빈의 숲'이라는 브랜드 이름처럼 숲을 상징하는 초록색과 흰색, 나무 모양의 그래픽을 활용해 환하고 깔끔한 비너발트. 4 한결 모던한 패스트푸드점으로 재탄생했다.

WIENERWALD

프리드리히 안프(Friedrich Jahn)이 첫 번째 '비너발트'를 뮌헨에 오픈한 것은 1955년. 빠른 성공을 거뒀지만 1982년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라졌고, 2007년 창립자의 손자가 경영권을 찾아 재건에 나섰다. 그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독창적인 미식 개념을 선보이는 동시에 회사의 오랜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디자인 개조에 나섰다.

'빈의 숲'이라는 브랜드 의미대로 숲을 상징하는 초록색과 흰색, 나무 모양의 그래픽을 활용해 더욱 환하고 깔끔하게 만들었다. 포인트로 사용한 황금색은 비너발트의 대표 메뉴인 그릴드 치킨을 상징한다. 요리도 바뀌었다. 닭고기는 저지방 고기로 바꿨으며 신선한 샐러드를 곁들였다. 다양한 다이닝 공간, 흰색 카운터, 깔끔한 펜던트 조명 등 보는 재미도 쏠쏠

하다. 현대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으로 거듭난 비너발트는 한 단계 진보한 레스토랑 디자인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주소 Wasserburger Landstrasse. 198 81827 Munich, Germany. 문의 www.wienerwald.de

글 이영재 기자 | 자료 협조 IF Group(www.ifgroup.org), IF Group Korea(547-1797) | Photo Zooley Braun (zooley@zooleybraun.de)